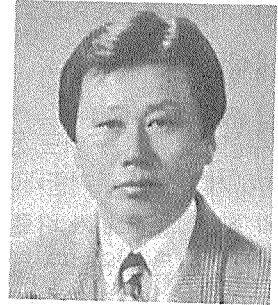


CPU 관세 “0” 세율화 해야 한다



신 영 조

본회 정보산업과장/부장대우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은 지난 '80년대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을 구가하여 왔으나 '90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91년에는 14%, '92년에는 11%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더우기 컴퓨터 본체의 경우 '92년에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난 '94년에는 전년대비 -23.3%로 매우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PC수요는 15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95년에는 200만대를 웃돌 전망이다. 이 정도면 전세계에서 10위안에 들어가는 숫자이며, 또한 국민들이 컴퓨터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우리는 PC 부품중 CPU 칩을 제외하고는 가장 고가인 메모리 칩에 관한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일의 생산국이다.

또한 모니터의 경우도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우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비해 매우 열세에 놓여 있다.

오늘날 대만은 세계 제일의 PC 생산대국이다. 일반 PC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노트북 PC를 비롯, 스캐너 마우스 등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력은 이제 전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이나 그들은 적어도 컴퓨터에 관한한 일본에 대한 열등감마저 극복했다. 만일 대만 중소기업 PC제품이 제대로 된 유통망과 AS망을 갖추고 한판 싸움을 걸어 온다면 가격과 품질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ACER PC가 국내판매 2주만에 1,100대가 판매되었다.

그러나 한때는 지난 '88년, '89년 우리가 세계 제일의 PC 수출국이었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어 PC조립과 생산에 유리했으나, 우리는 조직 유통이 굵은 대기업 위주였기에 발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PC 산업의 특성상 경쟁에 뒤질수 밖에 없다는 체념적인 논리도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만은 인구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되 PC 내수시장 규모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의 PC 제조기술은 기능별로 분리 제조하던 예전의 방식과는 달리 제반기능을 한데 통합하여 만드는 기능 통합 제조방식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미디어 PC를 제조할 때 비디오카드, 동화상 카드,

TV수신카드, 사운드카드 등이 한개의 카드로 통합하거나 아예 주기판내에 함께 장착하는 등의 최신 기술조류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이같은 단일보드 제조중심의 양산방식은 소량 다품종 생산위주인 대만보다 대기업 위주인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여건이다. 이제 PC산업 중흥은 정부가 나설때이다. 경쟁국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우선 PC의 중요핵심부품인 CPU의 관세를 영세율화 해야 한다.

CPU는 우선 전세계에서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은 관세가 없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국가별 CPU 관세부과 현황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관세율(%)	8(18.8)	0	0	0

()는 제세공과금 포함

이러한 관점에서 CPU관세는 "0"세율화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국내 생산, 공급이 불가능한 CPU에 대해 관세 등(18.8%)의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컴퓨터 업체들에 의해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국내 컴퓨터 가격이 높아져 취약한 수요계층(학생, 중소기업 등)의 구매 애로 요인으로 작용되어 정보화 사회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인 컴퓨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절대 불리하여 수출증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 일본 등의 CPU관세는 0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PC 수출액 규모는 대만의 1%에 불과하고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넷째, 많은 중소 컴퓨터 생산업체(전국의 약 1,000여개사)에 대해 막대한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섯째, 미국으로 부터의 통상압력의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미국관세는 0, 한국은 8%)

여섯째, 세율이 높고(18.8%), 크기가 작으며, 단가가 높아 수입 통관상의 관리가 어려워 밀수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CPU의 관세가 0세율화되면 PC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소비자 물가 안정화 대책(PC가격의 2~5% 인하가능)에 절대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컴퓨터 보급 및 이용의 증대로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이 예상된다.

셋째, 컴퓨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 및 전략산업으로서의 발전기반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초고속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는 물론 가정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컴퓨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그 중 하나가 바로 CPU 수입관세를 영세율화하는 것이다.